

# 나라사랑 뜻 이어 “1600여 교육가족 함께 달린다”

전남교육청, 학생독립운동 기념 ‘전라남도교육감기 마라톤 대회’ 성료  
3km·6km 단축 코스 운영·독도플래시몹·태극기 퍼포먼스 등 다채



올해로 94주년을 맞은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마라톤 대회가 도민 및 교육 가족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졌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전남교육청 일원에서 개최한 ‘제36회 전라남도교육감기 단축마라톤 대회’에 초·중·고등학생, 도민, 반려견 동반 참가자 등 1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대한독립을 위해 불의에 맞섰던 94년 전 학생들을 기린다는 의미를 담아 ‘세상을 바꾼 작은 거인들’이란 주제로 진

행됐다. 행사 첫 문은 목포 정명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 플래시몹으로 열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 참가자들이 대형 태극기를 펼치는 퍼포먼스 후, 본격적인 단축마라톤이 시작됐다.

단축마라톤은 정식 마라톤 42.195km보다 짧은 거리를 달리는 것으로, 이날은 전남교육청 앞 후광대로 일원에서 3km, 6km 두 코스로 나누어 진행됐다.

준비운동을 마치고 출발 신호가 울리자, 선두 대열인 중·고등학생 남자부 300여 명이 달렸고 그 뒤를 이어 교육가족부·특수학생부·초등부 등 질서정연하게 코스를 따라왔으며, 마지막으로 반려견 동반 참가자가 달려서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나라사랑의 마음을 일깨우는 바람개비 태극기 만들기, 태극기 페이스 페인팅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마련돼 호응을 받았다.

김대중 교육감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하게 달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고귀한 희생 덕이다.”며 “그 숭고한 뜻을 이어 대한민국을 빛낼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제94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 주간을 맞아 △교육영상 제작 및 보급 △창작 교육연극 공연 △스포츠 역사 이해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김수권기자



## 순천 매안초, ‘생명존중 캠페인’ 운영 주간 실시

### 학교폭력예방활동 일환

순천 매안초등학교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0일까지 2주일을 생명존중캠페인 운영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생명존중캠페인 운영주간 동안 ‘꿈그리기’ 뮤직비디오 제작을 통해 미래의 꿈과 장래희망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자신의 흥미와 진로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학교폭력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아이리브미, 아이리브유> 릴레이챌린지캠페인을 실시하여 학급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또래상담가 학생들이 약사가 되어 다양한 고민을 듣고 처방전과 처방약(젤리, 사탕 등)을 나누어주는 위클리캐 힐링약국이벤트에 참여하였다.

이번 ‘생명존중캠페인’은 소중한 존재인 ‘나’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뮤직비디오 제작 및 릴레이챌린지 운영 등 학생중심의 창의적인 활동으로 구안되어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6학년 김00 학생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직접 나의 꿈에 대한 스토리를 담은 작품을 그리고 제 작품이 유00에 나온다는 것이 신기하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공모전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또, 3학년 박00 학생은 힐링약국에 참여한 일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며, 언니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상담 해주어서 기분이 좋았고 받은 처방전을 소중한 간직하고 싶다고 전했다.

홍현숙 교장 선생님(매안초)은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로서 ‘나’를 인지하고 친구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기 바라며, 학교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배워길 바란다. 앞으로도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힘을 모을 것이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생중심의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학교장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 완도 노화초, 마카롱 만들기 수업 진행

### 학부모회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마을연계 교육활동



완도 노화초는 학부모회의 재능기부로 마을연계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학기에는 민속놀이 수업을 운영하였고, 2학기에는 마카롱 만들기 수업을 했다.

재료 준비부터 수업까지 학부모님들이 직접 계획하고 운영해야 해서 부담감이 있지만, 학생들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더 즐겁게 학교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용기를 내어 재능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카롱을 만든다는 소식에 학생들은 잔뜩 기대했다. 마카롱의 유래, 마카롱에 들어가는 재료, 만드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 고사리손으로 하나씩 완성했다. 만드는 방법이 어려워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마카롱을 만들어 보면서 성취감을 느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2023. 함평교육 한마당 성황리에 개최



함평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교육공동체와 함께 여는 탄탄한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2023 함평교육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함평교육 한마당 행사는 함평 관내 초·중·고 학생, 학부모, 지역민 등 천여 명이 참가

하였으며 48개의 체험부스와 학생 공연, 작은 학교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또한 교육감, 군수, 도와 군의회 의원 등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행사에 힘을 실었다.

12개의 작은학교 홍보 부스에서는 골프, VR, 공예 등 즐거운 체험을 곁들여 관람객의 발목을 잡았고 학교 특색과 장점을 알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또한 마을학교, 학부모회, 진로체험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 지역의 많은 기관과 단체가 함께해 ‘교육공동체와 함께 여는’이라는 슬로건의 취지에 맞게 조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부스 운영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교를 자랑하고, 솜씨를 뽐낼 수 있는 큰 자리가 마련되니 흥분되고, 왠지 학교에 학생들이 전학을 올 것 같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함평=김광춘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